

새로 나온 책

### 70년 전 '4김회담' 등 지도자 김구 재조명

올해 상반기 4.27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와 동북아시아 정세에 전환적인 화해국면을 조성했다.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세계가 국제관계에 있어 '협상'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전파를 통해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경험이기도 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같은 남북협상이 꼭 70년 전에도 있었다. 1948년 4월 27일 '김구, 김구식, 김일성, 김두봉' 등 남북의 지도자들이 만났던 4김회담이 바로 그것이다. 그해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지도자협의회는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만을 외친 것이 아니라,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까지 이끌어냈다.



다시 김구를 부른다 유기홍 지음/와이즈베리

역대 정권에 어떻게 계승됐는지 추적한다. 저자는 "김구가 정교한 사상가도 세련된 정치인도 아니었지만 조국의 독립과 평화통일이라는 신념을 우직하게 지킨 지도자로서 올바른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시정부는 결코 어느 한 계급 어느 한 정파의 정부가 아니라 전 민족 각 계급 각 당파의 공동한 이해 입장에 입각한 민주단결의 정부", "우리 정부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전 민족이 총 단결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한국에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건립하는 데 있다". 통일론과 같은 맥락에서, 김구의 임시정부에 대한 정의는 단결을 통한 통일의 의지를 다시한번 증명하고 있다. 324쪽, 1만4000원.

1948년 4월 20일 많은 이들의 조롱과 반대에도 절박한 심정으로 분단만을 막겠다며 38선을 넘고 김일성을 만났던 김구. 그리고 당시 맺었던 남북협상을 이 책은 주목하고 있다. 저자는 "시대착오적인 침략통일도,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갈등을 겪었던 독일모델인 흡수통일도 해답이 아니다. 바로 '협상'을 통한 통일의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며, 지도자 김구의 통일론을 이야기한다. 이 책은 해방공간에서의, 38선을 넘었던 김구를 재조명하면서, 김구의 통일론이 조봉암, 장준하 등과

### 공백을 채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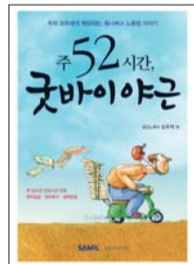
히라노 게이치로 지음/이영미 옮김/문학동네



가장 가까이에서 현대 일본을 쓰는 작가 히라노 게이치로의 여덟번째 장편소설이다. 제관에서 일하던 평범한 삼십대 가장 쓰치야 데쓰오가 어느 날 회사 회의실에서 눈을 뜬다. 순간 자신이 삼년 전 회사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떠오르고,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인지 미궁에 빠진다. 소설은 죽은자들이 되살아나는 기현상 속에서 주인공 스스로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추적한다. 600쪽, 1만5800원.

### 주52시간, 굿바이 야근

김우탁 지음/살인포머인



실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인상, 정규직전환 등 노동법과 관련한 주제를 총망라했다. 소설형식의 총 9가지 에피소드로 저자인 공인노무사가 전문적인 해설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또한 20여년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변화과정을 고찰해 개정 노동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20대 청년실업자, 취준생, 30대 기혼여성, 40대 자영업자, 50대 중장년 재직자 등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인물들을 통해 노동법의 이슈를 설명한다. 256쪽, 1만5000원.

### 필연적 부자

이재호 지음/뽀맨파커스



한국 주얼리업계의 입지전적인 (주)리골드 창업주 이재호 회장이 출간한 책이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열일곱엔 백화점 종업원이 됐던 가난했던 그가 어떻게 귀금속 소매점을 창업하게 됐는지, 30대 이른 나이에 큰 돈을 모았지만 피폐해진 몸과 마음을 마주해야 했던 그가 어떻게 삶의 가치관을 바꾸게 됐는지를 보여준다. 책에는 저자가 깨달은 부의 원리와 행복하게 도전하는 삶을 만날 수 있다. 272쪽, 1만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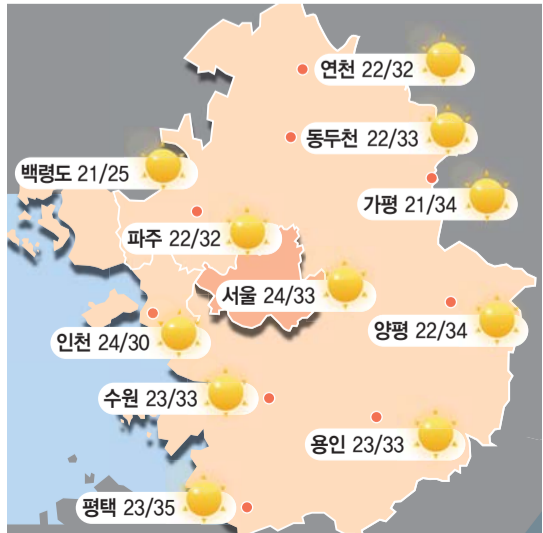
###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23 | 해짐 / 19:53

7월 16일  
음력 : 6월 4일

수도권 날씨  
33~24°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 '출루의 달인' 추신수, 50경기 연속 출루

베이브 루스와 어깨 나란히 MLB 전설 사이에 이름 올려

'출루의 달인'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50경기 연속 출루 고지를 밟았다.

추신수는 지난15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오리올 파크 앳 캠프 야드에서 열린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방문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1회초 첫 타석에서 예프리카미레스를 상대로 볼넷을 골랐다.

5월 14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전을 시작으로 출전한 모든 경기에서 출루 행진을 이어가는 추신수는 1923년 베이브 루스(뉴욕 양키스)가 작성한 개인 최장 연속 출루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중전 아시아 출신 선수 최장 기록(중전 스키치 이치로 43경기), 텍사스 구단 단일시즌 기록(중전 홀리오 프랑코 46경기), 현역 빅리그 신기록(중전 엘버트 푸홀스·조이 보토 48경기)을 차례로 넘어선 추신수는 이제 MLB 역사



/연합뉴스

속 전설 사이에 이름을 올린다.

1915년 타이 콥(디트로이트 타이거스)과 1943년 스탠 뮤지얼(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세운 55경기 연속 출루가 가시권에 들어왔고, 1998~1999년 데릭 지터(뉴욕 양키스)와 2003년 배리 본즈(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57경기 연속 출루 기록도 멀지 않았다.

이 부문 메이저리그 최장 기록은 '마지막 4할 타자' 테드 윌리엄스가 1949년 보스턴 레드삭스 소속으로 수립한 84경기다.

추신수는 연속 출루 출근부에 '도장'을 찍은 뒤 부담 없이 상대 투수를 괴롭혔다. 3회 선두타자로 등장해 두 타석 연속 볼넷을 골랐고, 5회에는 루킹 삼진으로 물러났다. 두 타석 모두 풀카운트 대결을 벌였다.

추신수는 0-1로 끌려가던 8회 선두타자로 나와 마이클 기번스를 상대로 올 시즌 100번째 안타인 좌전 안타를 때려 뒤 대주자 이시아 키너 팔레파와 교체됐다. 2타수 1안타 2볼넷으로 활약한 추신수의 타율은 0.290(345타수 100안타)으로 소속 올랐다.

그러나 텍사스는 추신수의 3출루 활약을 살리지 못한 채 0-1로 쳐 시즌 55패(41승)째를 당했다.

상대 마운드에 틀어막힌 텍사스는 6회말 요나탄 스토프에게 결승 히팅플라이를 내준 뒤 만회하지 못했다.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최하위 텍사스의 0-1 패배는 이번 시즌 처음이다. /연합뉴스

## 한국 vs 독일, 러시아 월드컵 명장면 2위

후반부 추가시간 득점 터져나와 최고의 명장면은 벨기에 vs 일본

한국이 세계 최강 독일을 물리친 것이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전체를 통틀어 명장면 2위에 올랐다.

미국 야후 스포츠가 이번 대회 18개의 명장면을 추려 발표한 가운데 한국이 조별리그 F조 3차전에서 독일을 2-0으로 꺾은 것은 2위에 올라 이번 대회 최고 하이라이트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았다. 야후 스포츠는 '독일은 스웨덴과 2차전에서 극적으로 승리했고, 다음 상대 한국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그러나 후반 추가 시간에 세상을 놀라게



독일 공격수 토마스 뮐러(오른쪽)가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3차전 한국과의 경기에서 0대2로 패한 뒤 허탈해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동시에 진행된 스웨덴과 멕시코 경기에서 스웨덴이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독

일은 반드시 이겨야 했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 한국의 득점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다.

야후 스포츠는 '한국의 골은 처음에 오프사이드로 잘못된 판정이 내려졌는데 비디오 판독을 통해 바로 잡혔다'며 '이후 독일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까지 골문을 비우고 공격하려 나왔지만 오히려 손흥민의 추가 골이 나왔다'고 한국의 극적인 승리 순간을 재현했다.

이 결과로 독일은 탈락했고, 멕시코 사람들은 모스크바 시내를 행진하며 한국 사람들을 어깨에 올려놓고 즐거워했다. 이런 장면은 월드컵에서만 볼 수 있는 미친 광경이라고 야후 스포츠는 평가했다. /연합뉴스

## 영릉·세종대왕역사문화관, 8월까지 특별 개방

오전 9시~오후 6시30분까지 6주간 휴관일 없이 매일 개방

경기도 여주에 있는 효종대왕릉인 영릉(寧陵)과 세종대왕역사문화관이 16일부터 오는 8월 20일까지 6주간 휴관일 없이 특별개방된다.

문화재청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유동 인구가 많은 여름 휴가 기간 중 휴관일인 월요일에도 효종대왕릉인 영릉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이처럼 영릉과 지난해 새로 개관한 세종대왕역사문화관을 함께 6주간 휴관일없이 개방한다고 15일 밝혔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세종대왕역사문화관에는 세종대왕과 효종대왕 그리고 조선 왕릉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세종대왕께서 후손에게 남긴 훌륭한 업적들과 그 업적의 바탕이 된 애민 정신을 느껴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돼 있다.

다만, 이번 특별개방 기간 중 세종대왕릉인 영릉(英陵)과 세종·효종왕릉 간 연



여주 효종 영릉(사적 제195호). /문화재청

결되는 '왕의 숲길'은 원래대로 월요일에 개방하지 않는다. 세종대왕 영릉(英陵)은 유적종합정비공사로 인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람이 제한되며, 봉분이 있는 능침구역만 효종대왕 영릉(寧陵)과 연결되는 '왕의 숲길'을 통해 관람이 가능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세종대왕릉은 이번 특별 개방에서 제외됐으나, 세종대왕역사문화관을 통해 세종대왕릉을 보지 못하는 관람객들은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 시와 사진이 있는 아침

#### 연꽃

숫아라 숫아올라라 네꿈..  
환하게 빛나야 할  
내 삶이여, 네 꿈이여..

/고흥근 작